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Inclusiv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esus Christ's Disabled Healing Ministry in the Four Gospels

김기흥 (Ki Heung Kim)**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true meaning of inclusive education based on the healing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examines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nclusive education. Two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element of inclusive education is human dignity. Second, inclusion is not only dependent on the will and efforts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but also on the active and cooperativ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ose around them. To this en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church's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of humanity, are developed and practiced, because the church and Christians have a unique mission and responsibility to lead the inclusion and reconcili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Key words: inclusive education, disabled person, healing, Jesus Christ

* 2023년 2월 13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대시대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져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중세에도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잔존했지만, 특히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자선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또 15세기 르네상스 이후 인문 및 자연과학, 의학 등의 발달로 공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에서 분리된 교육과 삶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북유럽의 정상화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와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은 장애인의 분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통합교육의 계기로 작용했다. 오늘날 통합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제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2010: 12-21).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볼 때 통합은 교육과 사회정책의 중요한 지향점이라 할 것이다.

기독교는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에서 사회 인식과 실천적 측면에서 공과(功過)를 동시에 보인다. 우선 중세 기독교의 이웃사랑, 자선 사상 등을 기초로 빈자, 장애인, 병자들의 보호 시설이 처음 설립되었다. 13세기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는 자신의 구제론(救濟論)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부자에게 빈자는 구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Schilling & Klus, 2022: 20-22). 또 기독교계에서 개신교의 대표적인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의 예는 독일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이다. 이는 1848년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신학자인 비헤른(J. H. Wichern)의 연설로부터 시작해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배경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이민자, 난민, 빈곤자, 중독자, 노숙자, 여성, 호스피스 환자 등을 돕는 사회복지 기관이다(<https://www.diakonie.de>). 또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자선구호 단체는 까리타스(Caritas)가 있는데, 이는 1897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 설립되었고, 현재 세계 약 200여 회원국의 국제 까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 조직이 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점으로 출신, 지위, 종교 등과 무관하게 가난, 폭력, 차별, 장애, 질병 등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다(<https://www.caritas.de>). 우리나라 역시 일반교육과 최초의 근대식 특수교육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의사인 홀(R. S. Hall)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기흥, 2020a: 205).

한편 초기 기독교의 장애인관 중에서는 장애 원인과 관련하여 죄의 결과로 보는 인과응보 사상이 지나치게 팽배했다. 4세기 로마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로마서 10:14절을 두고 청각장애인은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여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온전한 인간도 아니라고 보았다. 또 16세기 루터(Luther), 켈빈(Calvin)도 장애아동은 소위 ‘영혼이 없는 악마의 작품’으로 ‘체인지링(changeling)’이나 ‘갑상선종(keel goiter)’이라 폄하하며 안락사나 익사의 대상으로 보았다(Mattner, 2000: 22). 특히 20세기 히틀러의 인종주의(racism)나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국가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로 대량 희생되었다. 당시 기독교계는 나치의 범죄행위에 소수의 신·구교 지도자만이 저항했고, 대부분 암묵적인 동조나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김기흥, 2020a: 161-170).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장애인 인식조사에서도 동정, 시혜, 자선적 차원 등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가 많다(이만식, 2009: 54; 한정우·장옥례, 2018: 201-206). 또 교회 중 장애인 부서 설치 비율은 1% 미만이며, 장애인 교인의 비율이 비장애인 교인에 비해 극히 낮다(박명우, 2012: 36;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98-99). 또 장애인 호칭도 개정된 한글 성경이나 설교에서조차 불구자, 절름발이, 병어리, 소경, 곱배팔이 등 비속어들을 자주 볼 수 있다(이은미, 2013: 22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65-67).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의 장애인 이해수준도 무관심, 동정심이나 구제의 대상으로 보며, 장애인 관련 설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회의 장애인 인식과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담임 목회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천수, 2005: 73-77; 김요섭, 2007: 177; 오영환, 2007: 50). 이러한 목회자들의 태도 개선을 위해 목회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 관련 필수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된다(이금섭·배내윤·이민호, 2005: 311).

더군다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통합교육의 기본 사상과 실천은 학교에서의 교육적 통합을 넘어 사회적 통합으로 까지 지속되므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합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장애인들에 대한 무지나 편견 등의 태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거부적 행동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 및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62-267). 이러한 통합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지상사역, 죽으심과 부활 등의 역사적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로 분리되고 떨어진 하나님(그리스도)과 인간(왕하 18:6; 렘 50:5; 사 56:6 등), 인간과 인간(창 2:24; 시 133:1; 골 2:19 등) 간의 관계성을 온전히 통합하고 연합하도록 화목제물이 되셨다(렘50:5; 시133:1; 롬3:25, 6:5). 특히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다양한 치유 사역 중에 인간에 대한 존중을 비롯하여 이해와 용서, 협력 등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셨으므로 하나님-인

간, 인간-인간 간에 화목과 하나 됨을 이루신 것은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장애나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분리된 자아, 가족 및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영적 관계까지 이르는 전인적 회복을 이루셨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23; 정기철, 2017: 97-100).

그러나 장애인의 통합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실천적 노력은 여전히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60- 267; 김기흥, 2022: 51-56). 특히 기독교계나 일반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나 하나 됨을 방해하는 선입견, 이질감, 거부감 등 다양한 부정적 인식의 형성에는 신학자나 설교자들의 성경 속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가르침도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이은미, 2013: 233-23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17). 이에 본 연구는 사복음서 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 과정을 통합 교육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과 비장애인 간의 통합교육에 주는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복음서 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을 통합 교육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방법상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치유 사역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여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인 또는 환자들 간의 대화 및 주변 상황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문법적 혹은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본 주석과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사복음서 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사역의 대상 범위를 장애(인)만 아니라 질병까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이다. 사실 장애와 질병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도 선천적(유전적 혹은 염색체 이상 등)보다는 후천적(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원인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김기흥, 2020a). 따라서 많은 경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만성적 질병은 개인의 인지, 정서, 사회성, 의사소통, 신체운동, 감각 영역 등에서 기능과 역할수행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의학적, 기능적인 면을 부각하는 개인

적 모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적 문제 등을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모형이 강조되고 있다(이선우, 2009: 41).

II.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의 기본 개념

독일 교육학자이며 통합교육의 선구자인 무트(J. Muth)는 통합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과제로 보았다. 통합운동의 계기는 50년대 덴마크의 뱅크 미켈슨(Bank-Mikkelsen)과 스웨덴의 니르예(Nirje)의 정상화 원리이다. 이는 그 당시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삶이 지나치게 열악한 것을 비판하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환경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60년대와 70년대 유럽의 대형 장애인 수용시설의 비인간적 환경에 반대하며 일어난 탈수용시설화 운동도 한 몫을 했다. 즉 장애인들이 열악한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사회적, 가족적으로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격리된 시설 거주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 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사회 운동이었다(Groeschke, 2000: 134-140).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통합운동은 70년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최소제한 환경(LRE)이라는 개념의 도입과 함께 세계적으로 통합의 개념이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소제한 환경이란, 장애아동을 가능한 한 분리 교육(특수학교)에서 일반 교육 환경(일반학급 혹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이들의 학교생활도 비장애 또래들과 같은 보편성을 지향했던 것이었다.

통합의 영어 개념 ‘integration’은 라틴어 ‘integrare’의 ‘원상 복구하다’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이는 원래는 철학, 사회학 및 심리학에서 사용했는데, 오늘날 교육학에까지 확대되었다. 초기 교육적 통합 ‘integration’은 ‘선 분리 후 통합’이나 ‘모음식 통합’으로 이해했다. 그 후 1994년 6월 7-10일 스페인 살라망카(Salamanca)의 유네스코 회의에서 ‘integration’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inclusion(선 통합 후 분리/포함식 통합)’으로 대체되었다(김기흥, 2020a: 79-83).

우리나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제6항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정의에서 통합교육은 결국 각자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수용하고 인정받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은 학교 구성원들

간에 편견, 차별, 거부 등의 부정적 태도 대신에 상호 존중, 인정, 이해, 배려, 소통, 협력 등을 핵심적인 가치와 덕목으로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paradigm)이다. 이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라는 이중적인 구조보다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학교’(one school for all)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Hinz, 2002: 354-359; <https://www.bildungsserver.de>).

한편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네 가지 목적과 가치는, 먼저 각자가 가진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또 다양성의 인정으로 갈등이나 분쟁보다는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협력 등을 통해 조화성을 지향한다. 아울러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게 일반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교육과 수업에 참여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실현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수월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통합교육은 특히 장애아동의 입장에서는 모방학습의 향상, 비장애아동에게는 인성교육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기흥, 2020a: 154-157).

그 밖에 통합교육 수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물리적 통합을 비롯하여, 또래들과 함께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 과정적 통합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즉 통합교육의 절정은 장애아동이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사회·정서적으로 학급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 및 수용되는 사회적 통합을 들 수 있다.

III. 장애인 치유 사역의 통합 교육적 고찰: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1. 사복음서의 장애인 관련 기록의 개관

오세철(1986: 16-19)은 성경에 장애(인) 언급은 총 164회로 보았다. 그 중 구약이 56%이며, 또 시각(49%), 지체(35%), 청각장애(16%) 순이다. 성경의 분류법에 따라 구약은 율법서(16%), 역사서(12%), 시가서(7%), 예언서(21%) 순이며, 신약은 복음서(36%), 역사서(4%), 서신서(3%), 예언서(0.6%)로 이어졌다. 사복음서의 총 59회 중 시각(50%), 지체(36%), 청각장애(14%) 등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사복음서(개역 개정 NIV 한영 해설 성경, 2013년)에 장애나 질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기록은 <표 1>과 같다. 이는 총 56곳으로 마태복음 19, 누가복음 18, 마가복음 16, 요한복음 3곳 등인데, 일부 동일한 몇 사건들은 타 복음서에서 중첩적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어인 ‘간질’, ‘나병’, ‘눈멀고’, ‘다리 저는’, ‘귀먹고’ 등도 아직 있다. 또 사복음서의 장애나 질병의 유형 중 ‘귀신 들린 자’ 24회, ‘눈멀고’ 10회,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6회,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못 걷는 자' 6회, '중풍' 5회로 나타난다. 이를 우리나라「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별표 1]에 따라 범주화하면, 정신장애(귀신 들린 자), 시각장애(눈멀고), 청각장애/언어장애(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지체 장애(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못 걷는 자, 중풍) 등의 순이다. 또한 치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장애인·환자 및 주변인들과의 대화형이 36곳, 나머지 20곳은 단순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Records of the Disabled Person and the Sick in the Four Gospels

	장절	장애·질병 유형(중복 구절)	비고
마 태 복 음	4:23-24	각색 병, 고통,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	서술형
	8:2-4	나병환자(막1:40-45;눅5: 12-16)	대화형
	8:5-13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눅7:1-10;요4: 43-54)	대화형
	8:14-15	베드로의 장모 열병(막1:29-34;눅4: 38-41)	서술형
	8:16-17	귀신 들린 자/병든 자(막1:29-34;눅4: 38-41)	서술형
	8:28-34	무덤가의 두 귀신 들린 자(막5:1-20;눅8: 26-39)	대화형
	9:2-8	중풍병자(막2:1-12;눅5:17-26)	대화형
	9:20-22	열두 해 혈루증 여자(막5:21-43;눅8:40-56)	대화형
	9:27-31	두 맹인	대화형
	9:32-33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서술형
	9:35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서술형
	12:10-15	안식일의 손 마른 자(막3:1-6;눅6:6-11)	대화형
	12:22	귀신 들린 자(막3:20-30; 눅6:43-45, 11:14 -23, 12:10)	서술형
	14:35-36	모든 병든 자(막6:53-56)	서술형
	15:22-28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막7:24-30)	대화형
	15:30-31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서술형
	17:15-18	귀신 들린 아이(간질)(막9/14-29)	대화형
	19:2	무리의 병	서술형
	20:29-34	두 맹인(막10:46-52; 눅18:35-43)	대화형

마 가 복 음	1:23-27	귀신 들린 자(눅4:31-37)	대화형
	1:30-31	베드로의 장모 열병(마8:14-17;눅4:38-41)	서술형
	1:32-34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서술형
	1:39	귀신을 쫓으심	서술형
	1:40-44	나병환자(마8:1-4;눅5:12-16)	대화형
	2:3-12	중풍병자(마9:1-8; 눅5:17-26)	대화형
	3:1-6	안식일의 손 마른 사람(마12:9-14; 눅6:6-11)	대화형
	3:10	많은 병든 자	서술형
	5:2-15	무덤 사이의 군대 귀신(마8:28-34;눅8:26-39)	대화형
	5:22-43	회당장 아이로의 딸/열두 해 혈루증(마9:18-26;눅8:40-56)	대화형
	6:55-56	병든 자(마14:34-36)	서술형
	7:25-30	수로보니게 여자의 귀신 들린 딸(마15:21-28)	대화형
	7:32-37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대화형
	8:22-26	벧새다 맹인	대화형
	9:17-29	귀신 들린 아이(마17:14-20;눅9:37-43)	대화형
10:46-52	맹인 바디매오(마20:29-34;눅18:35-43)	대화형	
누 가 복 음	4:33-36	귀신 들린 자(막1:21-28)	대화형
	4:38-39	베드로 장모의 열병(마8:14-17;막1:29-34)	서술형
	4:40-41	각색 병, 귀신들린 사람	서술형
	5:12-15	나병환자(마8:1-4;막1:40-45)	대화형
	5:18-26	중풍병자(마9:1-8;막2:1-12)	대화형
	6:6-11	손 마른 자(안식일) (마12:9-14; 막3:1-6)	대화형
	6:17-19	더러운 귀신	서술형
	7:2-10	백부장의 종의 질병(마8:5-13;요4:43-54)	대화형
	7:21-22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맹인, 나병환자, 못 걷는 사람, 귀먹은 사람 등	서술형
	8:2	악귀, 병 고침, 일곱 귀신	서술형
	8:26-39	무덤 사이의 군대 귀신(마8:28-34;막5:1-20)	대화형
	8:41-56	회당장 아이로의 딸/열두 해 혈루증 여자(마9:18-26;막5:21-43)	대화형
	9:38-43	귀신 들린 아이(간질)(마17:14-18; 막9:14-27)	대화형
	11:14-26	병어리 귀신(마12:22-39, 43-45; 막3:20-27)	서술형
	13:11-17	18년간 귀신 들리고 등을 펴지 못하는 여자	대화형
14:2-6	안식일의 수종병(고창병)의 여자	대화형	
17:12-19	열 명의 나병 환자	대화형	
18:35-43	여리고의 맹인(마20:29-34;막10:46-52)	대화형	
여 한 개 음	4:46-53	산하 아들의 병(마8:5-13;눅7:1-10)	대화형
	5:3-18	38년 된 병자	대화형
	9:1-34	선천성 맹인	대화형

2.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

본 장에서는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한센인, 중풍병자, 귀신들린 자, 맹인 등의 치유사건들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또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이 단순히 서술형보다는 주님과 장애인 혹은 주변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인식을 오늘날 통합 교육적 맥락에 접목하여 파악하기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1) 한센인(Hansen's Disease)의 치유(마 8:2-4; 막 1:40-45; 눅 5:12-16, 17:12-19)

한센인 등 악성 피부병 환자(레 13-14장 등)는 이스라엘 율법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원칙적으로 여호와와의 전, 즉 예배 참여(대하 23:19)나 성문 출입 금지 등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이나 평생 분리(레 13:45-46; 민 5:2; 눅 17:12 등)되어 사회적 배제와 거부의 대상이었다(Martin, 이명준 역, 2011: 62; 송영목, 2011: 5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71-72, 215).

한센인들에 대한 주님의 치유과정(마 8:2-3; 막1:40-41; 눅 5: 12- 13)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다(김홍덕, 2020: 24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295).

첫째, 예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따르거나 또는 당시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 인식보다 더 본질적 의미인 모든 인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시고 치유하셨다. 주님은 당시 전통적인 사회법을 어기고 자신의 앞까지 온 한센인을 질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민망히’(스플랑크니조마이 (Splanchnizomai, NIV, filled with compassion)’ 여기시고 한센인의 고통과 외로움을 깊이 공감 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또한 치유된 열 명의 한센인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눅 17:14) 에게도 동일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주님은 치유된 한센인으로 하여금 개인적 재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도우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그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막 1:44)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한센인의 완전한 치유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하여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온전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통합되도록 도모해주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과정을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통합교육은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이나 전통적인 사회적 인식을 넘어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실천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도 주님의 치유는 개인의 신체적인 면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관계의 회복까지 이르는 전인적 치유가 가능한 것이었다(송영목, 2011: 52).

(2) 중풍병자의 치유(마 8:5-13, 9:2-8; 막 2:1-12; 눅5:17-26, 7:1-10,)

로마군 장교이자 이방인인 백부장(마 8:5-6)은 자신이 가족처럼 소중하게 아끼는 하인이 중풍병을 앓았다. 그는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고, 주님은 내방하여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질적 관계를 알고 있고, 군의 명령체계에 익숙한 백부장은 주님의 직접적인 치유보다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hiatheto, 아오리스트 수동명령 3인칭 단수)’라고 청한다(송영목, 2011: 288). 장애인의 개인적 재활이나 사회적 통합의 실현은 사회적 지위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협력적인 인간 존중 사상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33-34).

또 마가복음 2:3-12에서 가버나움의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려 했지만, 무리로 인해 당시 가옥의 평평한 지붕을 뜯어낸 후에 그를 상(krabattos, 빈곤한 사람의 침대)에 매달아 내렸다. 이때 주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여기에서도 특히 중풍병자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큰 관심과 사랑 등 인간 존중의 사상은 교육적, 사회적 통합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apeheontai, 현재 완료 신적 수동태)’라고 중풍병자의 치유 과정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송영목, 2011: 177). 성경에서 ‘장애·질병=죄의 결과’로 보는 부정적 견해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참고 레 21:17-18, 21, 23; 요 5:14; 약 5:13-18 등). 그러나 동시에 보호나 차별금지, 치유나 영적 회복(참고 행 3:1-8, 눅 19:1-10 등),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 표현, 하나님의 섭리 등(참고 렘 7:18; 고후 12:7, 9 등) 등 긍정적 인식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왜곡되고 치우친 해석은 결국 장애인의 개인적 재활과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질병=죄의 결과’라는 인과관계의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 형성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 편, 2015: 104-106; 김홍덕, 2020: 222, 266). 이에 중풍병자들의 치유 과정을 통합교육의 관점으로 보면, 먼저 주변 친구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실천적 행동을 통한 인간 사랑이 주님의 긍휼의 치유능력과 연합하여 놀라운 전인적(全人的)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3) 귀신 들린 자의 치유(마 8:28-34, 15:22-28, 17:15-18; 막 1:23-27, 5:1-20, 7:24-30, 9:14-29; 눅 4:31-37, 8:26-39, 9:37-43, 13:11-17)

예수 그리스도도의 여러 치유 사역 중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다. 송영목(2011, 26)에 의하면, 특히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은 특별계시의 침묵 기간에 속하는 신·구약 중간

기와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영적 암흑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이방인들의 지역인 가다라(또는 게르게사/거라사, Gerasenes)의 무덤가에 거하는 군대(legion, 약 3,000-6,000명의 군인)귀신 들린 두 사람의 치유(마 8:28-32; 막 5:1-20; 눅 8:26-39) 장면이 등장한다. 특히 마가는 그 중 더 심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일탈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마을공동체로부터 거부되어 분리되어 살았다(Barbieri, 정민영 역, 2011: 78; 송영목, 2011: 190, 239).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모두가 혐오하는 이방인 지역과 동시에 공동묘지라는 부정한 곳까지 가셨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메시아적 비밀)을 알고 달려와 절하는 군대귀신을 꾸짖으면서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었다(막 5:6-8). 여기에는 치유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진 예수님과 귀신들린 자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가다라의 이방인 주민들은 군대 귀신의 간구와 예수님의 명령으로 약 2,000여 마리의 돼지 떼를 잃게 되어 예수님께 떠날 것을 요구(막 5:17)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겐 돼지 떼가 영적 구원이나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98).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한 인간과 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인간관은 통합교육의 가장 기초적이고 궁극적 가치라 할 것이다. 또한 주님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후 자신의 가정, 친족 및 지역 공동체로 복귀하여(막 5:19)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통합되어 함께 살도록 지시하셨다는 점이다(김홍덕, 2020: 223-224; 송영목, 2011: 55, 191).

이어서 귀신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마 15:22-28, 막 7:24-30)와 귀신들린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는 아버지(마 17:14-20, 막 9:14-29)의 이야기가 각각 등장한다. 먼저 이방 지역인 가나안(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른바 구원의 특정주의, 즉 이스라엘의 우선적 구원을 강조하시며 거절하셨고, 이어서 여인을 (애완용)개(kynarion)로 비유하시며 무시하셨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계속 절하며(미완료) 거듭된 믿음의 고백과 간구에 마침내 이 가정을 회복시키셨다. 이어지는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간질(腦電症, epilepsy)로, 다른 복음서(막 9:14-29; 눅 9:37-43 등)는 귀신 들린 것으로 보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고, 제자들에게 축귀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음(막 9:19, 24)과 기도(29)의 부족을 책망하시고 큰 무리 앞에서 외아들을 치유하심으로 이 두 자녀들은 모두 신체적 고통,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전인적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다(김홍덕, 2020: 226, 243; 송영목, 2011: 94, 206, 300). 여기에서도 통합 교육적 맥락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결국 이웃(부모)의 연약한 자(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감적 이해라 할 것이다.

끝으로 누가복음 13:11-17은 안식일에 주님께서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등이 꼬부라진 소위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gynei pneuma echousa astheeias)을 만나셨다.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달리 먼저 이 여인의 치유 간구가 없었음에도 주님은 안수하셔서 건강을 회복시키셨다. 이때 회당장은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사역에 대해 무리들에게 신랄하게 비난하였다(14절). 이에 회당장의 저의를 간파하신 주님은 안식일에 가축들을 풀어 물을 먹이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해방시키는 일이 합당하며 당연하다고 갈파하신다(15-16절).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고통과 차별로부터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 영적인 속박에서도 해방시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셨다(김홍덕, 2020: 243-244; 송영목, 2011: 318).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인간이 어떤 재산적 가치(마 12:12의 양, 막 5장 돼지 떼 등)나 사회적 제도 및 전통(안식일, 율법 등)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이고 본질적인 통합교육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하고 요소는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의 인정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차별적 태도나 거부적 행동이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와 협력적 실천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맹인의 치유(마 9:27-31, 20:29-34; 막 8:22-26, 10:46-52; 눅 18:35-43; 요 9:1-34)

먼저 여리고 지역의 두 맹인(마9:27-31, 20:29-34, 막10:46-52, 눅18:35-43)과 이름이 알려진 맹인 바디매오(Bartimaeus)(막10:46-52)의 치유 사건이 각각 등장한다. 그 당시 이들의 삶은 대체로 장애와 가난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신체적, 경제적 고통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hyos David)이여’라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한다. 이러한 외침은 대부분 질병 치유 시 자주 보이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치적 논리보다는 죄와 질병의 전인적 치유와 구원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 공통적으로 주변인들(특히 제자들)은 예수님 일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맹인들을 계속 꾸짖으며(epetimon, 미완료 직설법 3인칭 복수), 배척하고 무시했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192).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처지를 통감하시며 회복시켜 주셨다(김홍덕, 2020: 227; 송영목, 2011: 59, 72-73, 110, 346). 이러한 주님의 치유 사역의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의 주요 의미는 먼저 제자(무리)들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무시나 배척 행동은 통합교육의 매우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에 대해 주님의 공감적 이해와 실천하시는 사랑의 결과는 결국 이들로 하여금 개인적 회복과 교육적,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어서 두 가지 서로 대조적인 치유 사건이 등장한다. 먼저 마가복음 8:22-26에는 벳새다 지방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안수해주시길 바랐다. 이에 주님은 두 눈 안에(eis) 침을 뱉으

시며(23) 두 손으로 거둬 안수하시며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어서 요한복음 9:1-34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상에서 거지이자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셨다. 이때 주변인들은 맹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감적 이해 속에서 치유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비본질적으로 전통사상에 따라 누구의 죄의 결과로 장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장애의 특별한 연관성을 모두 일반화하는 대신에 획기적인 중요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다. 즉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참고 갈 4:13; 고후 12:7). 여기에서도 특이한 점은 이 맹인의 경우도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치유 사역이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예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 회복이 된 것이다(김홍덕, 2020: 267-268; 송영목, 2011: 419-422). 아울러 주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나 안식일의 참 주인도 모르는 채 단지 안식일 치유에 대해서 주님을 정죄하고 부정하기도 했다(24). 이들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 공감적 이해보다는 안식일 치유나 장애가 누구의 죄의 결과인지 등의 비본질적인 전통과 형식에 집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 본 통합 교육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소중함의 사상 위에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결국 성공적이고 본질적인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5) 기타 치유: 혈루증 여인(마 9:20-22; 막 5:21-43; 눅 8:40-56), 손 마른 자(막 3:1-6; 마 12:9-14; 눅 6:6-11), 고창(수종)병(눅 14:2-6)

끝으로, 주님의 대화체 형태의 치유 사역은 혈루증 여인, 손 마른 자 및 고창병 환자 등으로 이어진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맥락을 살필 수 있는데, 즉 환자의 치유와 율법과 안식일 등 전통과 제도에 대한 당시 주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혈우병)으로 고통 하는 여인을 만나셨다. 이 여인은 오랜 투병으로 인해 증세는 가중되어 신체적 고통과 많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하게 되었다. 또 그녀는 당시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 개인 및 사회생활 전반에 심한 차별과 고독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103). 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나아가서 몰래 걸옷을 만짐으로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 그때 이 모든 과정과 여인의 마음을 간파하신 주님은 이를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막 5:34)’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나 사회의 전통적인 인식을 넘어 그 여인의 삶의 아픔에 대해 공감적 이해로 접근하셔서 결국 영육의 회복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난 전인적 구원이 성취된 것이다(김홍덕, 2020: 224, 242-243; 송영목, 2011: 59, 192).

이어서 ‘한편 손(오른손) 마른 자(ekserammenen, dried up, 완료형)’와 고창(수종)병(dropsy, 부종;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언급된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고통과 한계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 특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주 관심은 이들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혹은 영적 회복에 있기보다는 오로지 율법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두 사람을 치료하시며 안식일을 문자적, 의식으로만 지키는 것보다는 연약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참고 호 6:6)을 베푸는 것이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라고 설교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심으로써 고쳐주셔서 진정한 안식을 통해 가족과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Gramics, 김도훈 역, 2011: 71; Barbieri, 정민영 역 2011: 101; 송영목, 2011: 71- 72, 182; 김홍덕, 2020: 241-242).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치유 과정의 통합 교육적 의미는 결국은 세상의 전통이나 제도보다도 인간 자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이 기초적 요소라 할 것이다.

IV.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통합교육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및 환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장애인 통합교육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치유 사역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복음서 상 33곳에 나타난 7가지 주요 질병과 장애의 치유 과정에서 주님은 성별, 사회적 지위의 고하, 질병이나 장애 유형, 민족(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어떤 차별도 없이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떠한 물질적 가치(참고 마 12:12)나 제도 및 전통(안식일, 율법 등)보다도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신체적, 영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의 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우선시하셨던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존중 사상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창조과정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육신(Jesu Incarnation), 공생애, 십자가 사건, 부활 등(창 1:26; 시 3:3-8; 마 9:13; 요 3:16 등) 일련의 사건 자체가 만물들 중에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는 방증

일 것이다(김기홍, 2018: 19-23).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였던 칸트(Kant)는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하는 유일한 피조물이자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등 교육적 인간 존재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법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장애인도 교육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닌 것이다. 특히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운동, 감각,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과 문제를 보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존엄성 사상을 골자로 하는 인간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학문이다. 더 나아가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동일 공간에서 개인의 특수성과 일반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교육과 수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이 가장 기초적 사상이자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사에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교육과 일상생활 중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권은커녕 생명권까지 박탈당한 역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이후에도 나치의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 싱어(P. Singer)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플레처(F. Fletcher)의 상황윤리,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 등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인간관의 대표라 할 것이다(김기홍, 2018: 26-28).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존재 가치나 존재 의미가 주로 경제성, 합리성, 생산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무서운 시대정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특수교육뿐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장애인과 환자들에 대한 전인적 치유 사역은 사회 주변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과정의 일부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간구(한센인과 맹인 등)나 주님의 일방적 치유 사역(귀신들린 자, 한편 손 마른 자 등)도 소수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중풍병자, 귀신들린 자, 맹인 등)은 부모, 친구 및 주변인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인적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교육도 장애인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공동체적 정신으로 실천적 참여가 더 요구된다. 장애학생들이 비장애 또래들과 함께 놀고 배우며 살아가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나 법률의 제정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를 비롯하여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내면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협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특수학교나 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반대나 장애인 공동거주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거부감, 장애인 이동권의 결여 등의 모습은 여전히 교육적, 사회적 통합에

저해 요소로 사회의 부정적 인간(장애인)관과 비협력적인 점은 우려할 만하다 할 것이다(<http://www.ichannela.com>; <http://www.ablenews.co.kr>).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수용, 연합, 하나 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기본 사상과 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먼저 모든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이 전제되는 인간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관심과 실천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복음서에만 등장하는 장애인과 환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형 치유사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신구약 전체에서 장애인 및 환자들의 치유과정을 교육적,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보다 더 다양한 학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기홍 (2018).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본 히틀러(Hitler)의 정치이념에 따른 인간관(人間觀) 비판. **신앙과 학문**, 23(3), 5-37.
- [Kim, K. H. (2018). A Criticism of Hitler's View of Humanity According to Hitler's Political Ideology from the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Faith & Scholarship*, 23(3), 5-37.]
- 김기홍 (2020a).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집문당.
- [Kim, K. H. (2020a).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oul: Jipmundang.]
- 김기홍 (2020b). 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기독교회의 태도. **신앙과 학문**, 25(2), 153-182.
- [Kim, K. H. (2020b). The Christian Church's Attitude toward Hitler's National Socialist Policy. *Faith & Scholarship*, 25(2), 153-182.]
- 김기홍 (2022).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신앙과 학문**, 27(1), 39-66.
- [Kim, K. H. (2022). Exploring Christian Worldview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Faith & Scholarship*, 27(1), 39-66.]
- 김도훈 역 (2011). **BKC 강해주석 마가복음**. Gramics,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Mark. 서울: 두란노.
- [Kim, D. H. (2011). *Gospel of Mark. BKC Commentary*. Mark Seoul: Duranno. Trans. Gramics,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Colorado: SP Publications.]
- 김요섭 (2007). 교회 장애인부서 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육정보**, 16, 157-180.
- [Kim, Y. S. (2007). A Survey on the Attitudes of Teachers in the Church's Disability Department.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16, 157-180.]
- 김홍덕 (2020). **장애신학 2**. 충남 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 [Kim, H. D. (2007). *Disability Theology 2*. Chungcheongnam-do Nonsan: Daejangan.]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 준비위원회 편 (2015). **장애인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Ministry of Social Services, Disability Theology Preparatory Committee (2015). *Disability Theology*. Seoul: Hangugjanglogyochulpansa.]
- 박명우 (2012). **한국 개신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Park, M. W. (2012). *A Study o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isabled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0), 97-126.
- [Park, H. J., Kim, J. I. & Cho, Y. G. (2012). A Study on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Including Convenience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in Korean Churches. *Faith & Scholarship*, 17(10), 97-126.]
- 송영목 (2011). **신약주석**. 서울: 쿤란출판사.
- [Song, Y. M. (2011). *New Testament Commentary*. Seoul: Qumran.]
- 오세철 (1986). **성경에 나타난 障碍者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Oh, S. C. (1986). *Disability in the Bible*.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오영환 (2007). **장애인의 통합예배 참여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Oh, Y. H. (2007). *General Christians' Perception of Participation in Integrated Worship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이금석·배내운·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Lee, G. S., Bae, N. Y. & Lee, M. H. (2005).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Education-related Courses in Pastoral Training Colleg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4), 297-313.]
- 이만식 (2009).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선한 행위의 진정한 의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377, 52-57.
- [Lee, M. S. (2009). The True Meaning of Good Deed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ducation Church*, 377, 52-57.]
- 이명준 역 (2011). **BKC 강해주석 누가복음**. Martin,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Luke. 서울: 두란노.
- [Lee, M. J. (2011). *Gospel of Luke.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Seoul: Duranno. Trans. Martin, J.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Colorado: SP Publications.]
- 이선우 (2009).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Lee, S. W. (2009).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Jipmundang.]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Issues and Direction of Christian Approaches to People with Disability. *Theology and Mission* 42, 215-246.]
- 이천수 (2005).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윤리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C. S. (2005). *A Research Study on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Seminarians toward the Disabl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쿼란출판사.
- [Chung, K. C. (2017). *Jesus who Teaches, Preaches and Heals*. Seoul: Qumran.]
- 정민영 역 (2011). **BKC 강해주석 마태복음**. Barbieri, L.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Matthew*. 서울: 두란노.
- [Jung, M. Y. (2011). *Gospel of Matthew. BKC Commentary*. Seoul: Duranno. Trans. Barbieri, L. (1985).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Colorado: SP Publications.]
- 한정우·장옥례 (201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통합예배에 대한 비장애성도들의 인식. **신학과 사회**. 32(2), 169-210.
- [Han, J. W. & Jang, O. L. (2018). Awareness of Non-Disabled Christians on Community Integrated Worship of Disabled welfare Facility Users. *Theology and Society*, 32(2), 169-210.]
-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2010).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Hausdruckerei BMAS.
-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the Interests of Disabled People (2010).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In-House Printing BMAS]
- Groeschke, D. (2000): Das Normalisierungsprinzip-zwischen Gerechtigkeit und gutem Leben: eine Betrachtung aus ethischer Sicht. In: *Zeitschrift für Heilpädagogik*. 51, Nr. 4, 134-140.
- [Groeschke, D. (2000): The Normalization Principle between Justice and a Good Life: an Ethical Perspective. In: *Journal of Curative Education* 51, No. 4, 134-140.]
- Hinz, A. (2002). Von der Integration zur Inklusion-terminologisches Spiel oder konzeptionelle Weiterentwicklung? *Zeitschrift fuer Heilpaedagogik* 53, 354-361.
- [Hinz, A. (2002). From Integration to Inclusion-Terminological Game or Further Conceptual Development? *Journal of Curative Education* 53, 354- 361.]
-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 Kohlhammer.
- [Mattner, D. (2000). *Disabled People in Society*, Kohlhammer.]
- Schilling, J., Klus, S. (2022). *Soziale Arbeit. Geschichte-Theorie-Profession*. 8. Aufl. UTB GmbH.
- [Schilling, J.& Klus, S. (2022). *Social Work. History Theory Profession*. 8th Edition UTB GmbH.]
- Caritas Deutschland. [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
- [Caritas Germany. [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https://www.caritas.de/diecaritas/wir-ueber-uns/die-caritas-in-zahlen/statistik(2022.12.27.))].

Diakonie Deutschland. https://www.diakonie.de/fileadmin/user_upload/Diakonie/PDFs/Diakonie_Charta_Fuer_ein_Soziales_Europa_Leichte_Sprache_final.pdf(2022.12.27).

[Diakonie Germany. https://www.diakonie.de/fileadmin/user_upload/Diakonie/PDFs/Diakonie_Charta_Fuer_ein_Soziales_Europa_Leichte_Sprache_final.pdf(2022.12.27).].

Bildungsserver. <https://www.bildungsserver.de/Inklusive-Schule-11008-de.html>(20 23.3.3.)

[educationserver.<https://www.bildungsserver.de/Inclusive-School-11008-de.html>(20 23.3.3.)]

[다시 간다] “또 무릎 꿇어야 하나” 곳곳에 ‘서진학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734 (2023. 2.7.).

[Going again] “Should I kneel again?” ‘Seojin School’ everywhere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1734 (2023. 2.7.).].

국정감사, 장애인 고용 분야 이슈 진단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40>(2023.2.7.).

[National audit, diagnosis of issues in the field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http://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40>(2023.2.7.).].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Inclusiv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esus Christ's Disabled Healing Ministry in the Four Gospels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예수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을 바탕으로 장애인 통합교육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장애인 통합교육에 주는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두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심과 참여가 결정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를 위해 특히 기독교 세계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정립과 실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과 화목을 선도해야 하는 고유한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통합교육, 장애인, 치유, 예수 그리스도